

불탄 집에서 반지 찾아 청혼한 남성



▲ 사진=wtol.com

지난달 4일 오후 6시30분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퍼퀘이버리나에 사는 손 매슈스와 그의 연인 켈리 스탠리의 주택에 화재가 일어났다. 당시 두 사람은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있었고 집에는 13살 된 반려견 뱀피스가 남아 있었다.

두 사람 집의 화재를 알게 된 이웃주민 로라는 손의 현관에 설치된 초인종 보안카메라로 "당신 집이 불타고 있다! 빨리 돌아와!" 라고 필사적으로 두 사람에게 전했다.

놀란 손과 켈리는 뱀피스의安危가 걱정됐다. 어떻게 든 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로라와 이웃 주민들은 차고를 통해 실내로 들어가 무사히 뱀피스를 구조했다.

그 후로도 이웃들은 소방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폭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가스관을 차단하고 뜰의 호스 등을 사용해 불을 끄기 위해 애썼다. 이후 달려온 소방대가 진화 활동을 펼쳤지만 안타깝게도 집은 모두 타버렸다. 집은 지어진 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다.

화재가 진압된 후 손은 잿더미 속에서 금고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켈리에게 청혼하려고 최근 구매한 다이아몬드 약혼반지가 들어 있었다. 반지를 찾아 든 손은 이웃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로 위에서 켈리에게 깜짝 청혼을 했다.

갑작스러운 프러포즈에 켈리는 당황했지만 이내 청혼을 받아들였다. 이에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기뻐했다.

손과 켈리는 "개를 구조하고 불을 끄기 위해 애써준 이웃 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말했다.

열차 바닥에 생닭 늘어놓고 판매한 여성



▲ 사진=larepublica.pe

지하철 열차 바닥에 생닭을 진열해 불법 노점을 시도했던 중년 여성이 체포됐다.

사건은 지난 6일 중국 난징시 지하철 10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10호선 지하철에 탑승한 50대 이 여성은 검정색 봉지 속에 넣어 준비해 온 생닭 8마리를 바닥에 진열한 채 불법 노점을 시작했다. 이 여성이 준비해 온 생닭은 비닐봉지나 포장지 등 일체의 위생 포장지가 되지 않은 채 생닭 그대로 바닥에 진열된 상태였다.

문제의 여성은 옆좌석에 탑승했던 한 여성 승객의 옷을 끌어당기며 닭 구매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 목격자는 "당시는 오전 6시여 승객들이 적었지만 바닥에 생닭을 그대로 벌여놓은 채 판매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위" 라고 말했다.

이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수사 결과 이 여성은 사건 발생 이전에도 수차례 시내 버스와 고속버스에서 불법 노점 행각을 벌여 적발된 체포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생닭 가격을 묻는 승객에게 "가격을 물어보면 무조건 사야 한다." 고 말해 갈등을 빚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징시 지하철 관리사무소 측은 "어떠한 이유든 열차 내외부에서의 노점 행위는 모두 불법" 이라면서 "방역 업무가 엄중한 상황에서 비위생적인 행각은 부디 자중해 달라." 고 당부했다.

배보다 큰 배꼽...세금 폭탄

아르헨티나에서 진정한 세금폭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영수증 1장이 공개돼 큰 반향을 사고 있다. 아르헨티나 청년 마누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영수증 사진을 공유했다.

마누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 티켓을 샀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공공 묶여 있던 중남미지역 해외여행은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하늘 길 빗장을 푸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마누는 여행 예정인 국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티켓 요금을 보면 아르헨티나 인접국으로 추정된다. 마누가 낸 항공 티켓 요금은 세전 5만4,600페소(약 600달러)이다. 하지만 세금 명목으로 붙은 돈은 5만4,638.90페소로 세전 티켓가격보다 세금이 38.90페소 더 많다.

Mostrar detalles	
Tarifa	\$ 54.600,00
Impuestos y cargos	\$ 54.638,90
Costo total	\$ 109.238,90
Ver acumulación de MileagePlus para este viaje	

▲ 사진=twitter(maanespinosa)

세금 폭탄을 맞은 마누는 사진에 "나를 위해 티켓 1장 그리고 국가의 누군가를 위해 또다른 1장을 샀다" 는 제목을 달았다. 국가가 세전 요금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뜯어가고 있어, 얼굴도 모르는 공무원 1명에게 티켓 1장을 사준 꼴이라고 꼬집은 워트 넘치는 제목이다.

다른 네티즌은 "이 정도면 티켓을 사면서 세금을 낸 게 아니라 세금을 내니 티켓 1장이 온 거네." 라면서 황당한 주객전도를 꼬집었다.

세금 폭탄은 아르헨티나의 고질적 병폐로 꼽힌다.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옷값의 50.3%는 각종 세금이다. 의류업계는 "옷이 비싼 건 세금 때문" 이라면서 "여러 차례 세금 인하를 촉구했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정부는 업계의 하소연을 외면하고 있다." 고 하소연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